혁신도시 전력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인색

새정치 주승용 의원 국감 … 평균 10.9% 그쳐

부산 23%, 충북 19.9%… 전력거래소는 계획도 못잡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한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이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전력 관련 주요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평균 10%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한전KPS 등 전력 관련 공기업 4곳의 올해 정규직 채용 예정인원은 1507명이며 이 가운데 지역인재로 164명(10.9%)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전 KDN이 예정 인원 90명 중 20%인 18명을, 한전 KPS는 399명 중 15.3%인 61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채용 계획인원 1000명으로 전력 공기업 전체 인원의 3분2를 차지하는 한전은 8.5%인 85명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별도의 채용 계획도 잡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혁신도시는 지난해 27.5%에 이어 올해도 23.1%를 지역인재로 충원한다. 충북은 12%에서 올해 19.9%로 무려 7.9%포인트나 올릴 계획이다. 경남은 11.9%에서 16.7%, 대구는 8.9%에서 12.5%, 제주는 8.6%에서 13.6%, 전북은 10.7%에서 13.3%로 늘렸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함께 이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올해 채용인원 24명 중 절반이 훨씬 넘은 15명(6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주 의원은 혁신도시를 조성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취직을 위해 지방을 떠나는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채용 목표를 대폭 올리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구색맞추기식 채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전 임직원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징계 100건

최근 5년 …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관행 여전

전순옥 의원 국감 자료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49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건, 2012년 28건, 2013년 9건, 2014년 16건, 올해 8월 말 현재 25건으로 지난해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00건으로 협력업체와의 그릇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0만원 이상 고액 금품수수는 42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200만~300만원 15%, 100만~200만원 6%, 100만원 이하가 37%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를 동원해 한전KDN에 일감을 몰아주고 한전 퇴직자 출신 회사와 수백억원의 부당 수의계약을 해 공정 경쟁 시장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지난 18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전이 발전 5사와 한수원까지 동원, 계열사인 한전KDN에 일감을 몰아줘 한전KDN이 가만히 앉아 수십억원의 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2008~2012년 IT 관련 단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한전KDN을 중간 거래 단계에 끼워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받게 해줬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한빛원전 오늘부터 핫라인 가동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력본부와 핫라인을 개설·가동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핫라인 개설은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 과제인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의 하나다.

핫라인은 광주시 재난상황실과 한빛원전 비상대책실 간 직통 전화가 연결됐다. 핫라인을 통해 긴급상황이 파악되면 재난상황을 신속히 발령해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실을 격상·신설한 바 있다. 또 원전으로부터 시민보호를 위해 한빛원자력본부 책임자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4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북, 한빛원자력본부 등 4개 기관과 호남권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공동 참여 등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다.

시는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해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호남권 광역협의기관은 물론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 등 관계 기관과도 상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렬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핫라인 구축으로 관련 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는 전남대학교 안에 설치돼 있으며 지역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감시결과 평가 등을 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옛 평화시장 골목 강강술래

19일 광주 북구 중흥2동 평화시장 인근에서 열린 '옛 평화시장 골목 강강술래 프로젝트' 행사에서 주민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강강술래 공연을 펼치고 있다.〈광주 북구청 제공〉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1만명 넘었다

1년7개월만에 … 나주시 인구 10만명 육박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거주인구가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04년 붕괴된 나주시 인구 10만명 회복도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 나주시 빛가람동주민센터에 따르면 빛가람동이 2014년 2월 24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1년 7개월만인 지난 15일 인구 1만명을 돌파했다.

빛가람동 전입 1만번째 주인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김유진(여·34)씨다.

김씨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거주하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다섯살과 두 살배기 아이 둘을 데리고 나주로 이사했다. 김씨는 "직장 때문에 남편을 제외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서 안도했다"고 말했다.

기관 이전과 공동주택 입주가 활발해지면서 빛가람동 인구는 올 2월 25일 5000명, 6월 11일 8000명, 7월 31일 9000명을 각각 넘어섰다. 하루평균 30~40명의 전입이 이뤄지고 있어 올 연말이면 1만3000명이 넘을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빛가람동 인구 1만명 가운데 서울·경기 등의 전입자는 1815세대 3869명, 나주를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의 전입은 1680세대 4567명으로 관외전입자가 84%에 달하고 있다.이에 따라 나주시 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만명이 무너진 뒤 3년여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 8월말 기준 9741세대 9만6450명으로, 내년이면 10만명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공동주택 등의 입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는 내일 열려

반시국선언 참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엄기욱(48)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가 21일(오늘) 개최된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에서 2주간 연기됐던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인사 청문위원은 임택 위원장을 비롯해 전진숙 부위원장, 박춘수, 김용집, 문태환, 김민종, 이정현, 김옥자, 문상필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인사청문회 뒤 결과 보고서는 오는 23일 제출되고 2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에 내정된 허성관(68)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2일 시·도의회 공동주관으로 전남도의회에서 열린다. 청문위원으로는 광주시의회 박춘수·임택·조오섭·주경님·이정현 의원, 전남도의회에서는 강성휘·우승희·최대식·김태균·서동욱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앞서 광주전남연구원은 허 내정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력, 병역, 재산, 납세 현황 등이 포함된 인사청문 요청서를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지사 中 저장성 방문 … 수산가공유통 협력 모색

이낙연 전남지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저장성(浙江省) 저우산(舟山)시 국제수산시장과 닝보(寧波)시 닝보항을 시찰하고, 수산가공유통과 항만물류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 지사는 중국 저우산시 고위인사들과 만나 '수산물 양식기술 및 유통 가공분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남도 브랜드시책인 '가고 싶은 섬'과 연계한 '섬 팸투어단' 교차 방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닝보시에서는 세계 1위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닝보항의 급속한 성장 배경과 지방정부 차원의 항만육성 정책을 살피고 닝보항과 광양항·목포신항의 물동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저우산시와 닝보시가 있는 저장성은 3061개의 섬, 6696km의 해안선, 2886㎢의 갯벌, 531만t의 수산물 생산 등 해양수산분야에서 전남과 환경이 비슷하다.

전남도는 저장성과 지난 1993년 11월 우호교류약정을 체결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인 2005년 전남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한중포럼 윤번제 개최, 청소년 교류, 공무원 파견 교류 등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하나허니문 인기 상품

캐주얼 [세미팩] [직항이동] 프라하 6일/7일
총상품가 1,94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EUR12~,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일/월요일
특 전 : 인천 ↔ 프라하 직항 이동
프라하 스냅 촬영 포함/일일 데이투어 포함
공항 미팅, 샌딩 서비스 포함

캐주얼 [프리텔] 이태리(로마/피렌체/베니스) 8일
총상품가 2,144,6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토/일요일
특 전 : 예식 후 당일 출발 가능
로마 → 피렌체 → 베네치아 초고속 열차티켓 포함
시내 중심의 준특급 호텔 숙박

하나허니문 추천 상품

클래식 [스타가이드] 파리(1일관광)/이태리(더몰+피렌체) 8일
총상품가 2,618,7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10월 ~ 12월 매주 일요일
특 전 : 파리-로마 항공 이동
유럽 아울렛 더몰+피렌체 가이드 관광
몽빠르나스 타워 56층 코스 요리, 마짱콜레(해물 특식)with 와인

클래식 [반얀트리] 세이셸 6일/7일
총상품가 3,453,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토/일/월요일
특 전 : 오션뷰풀빌라 4박 숙박 / 공항 ↔ 리조트 간 미팅,샌딩 서비스
샴페인 1병, 디럭스 과일 바구니, 로맨틱 빌라 셋업, 기념 선물 제공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페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